

광주학생독립운동 88주년 기념 후배들 100여명 참여 창작공연

내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 5·18광장서 항일정신 재현 창작무용극 '호남선'도 선보

광주학생독립운동 88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창작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특히 광주일고 등 청소년 100여 명이 참여해 그날의 항일정신을 재현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도 펼쳐져 그 의미가 더 각별하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4일(오전 11시 30분~오후 7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88주년을 기념하고 5월 광주정신을 되새기는 '2017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첫 선을 보일 창작공연 퍼포먼스극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로 향하는 통학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단초로 진행된다. 이 퍼포먼스극은 광주일고, 살레시오여고 학생을 비롯 이날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청소년 100여 명이 함께해 의미가 남다르다.

이밖에 1940년대 초 남광주역을 배경으로 한 프린지 창작무용극 돌음무용단 '호남선'과 '광주 낫달 꽃을 피우다II'가 준비



지난 10월 7일에 열린 프린지페스티벌.

돼 있다. 특히 '광주 낫달 꽃을 피우다II'는 태양 빛에 가려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낫달'이지만 깨끗한 '광주 정신'으로 빛들어 표현한 작품이다.

서양화가이자 미술평론가인 나선후 씨가 기획 및 연출하고 박선욱(광주여대 무용과) 교수, 웰로리스트 박효은, 성아 송태왕, 돌음 무용단 등이 함께 퍼포먼스를 펼

친다. 한편, 이번 프린지페스티벌에는 지난 10월 열린 '서울거리예술축제'와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교류 공연으로 서울 비보이 단체 캄블르크루를 초청해 '플라이업(Fly up)' 무대를 올린다. 문의 062-601-491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엄마하고 나하고 키즈 클래식'

광산구 운남어린이도서관 4일·18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연주하고, 대화하는 클래식 콘서트가 열린다.

광산구립 운남어린이도서관은 아동을 위한 '키즈 클래식'을 오는 4일과 18일 오후 3시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키즈 클래식'은 익숙한 고전음악을 연주하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해설하는 기획이다. 연주와 해설은 피아니스트이자 'ART&SOUL 예술강의기획' 대표 조현영 씨가 맡는다.

4일 공연의 주제는 '엄마하고 나하고'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모차르트 '작은별 변주곡', 유패미나 엘렌 '젓가락 행진곡', 바다체프스카 '소녀의 기도'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등을 만날 수 있다.

18일은 '교과서 안으로 놀러 간 클래식'에서는 파헬렐 '개는 변주곡', 생상스 '백조', 쇼팽 '환상즉흥곡', 엘가 '사랑의 인사', 슈베르트 '군대행진곡' 등을 연주한다. 무료 참여. 문의 062-960-83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현영 대표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상영

국립광주박물관 내일 교육관 대강당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가을 여행기간을 맞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을 위해 4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가족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를 상연한다.

독일 그림 형제의 동화를 원작으로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는 높고 슬모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려진 당나귀, 고양이, 강아지, 암탉 등 네 동물이 우연히 만나 브레멘 음악대가 되기까지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브레멘 동물들이 각자의 끼를 표현하며, 신나는 타악기 연주부터 현대무용, 코믹댄스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따뜻한 가족애와 친구의 소중함을 동시에 일깨워 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6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며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을 통해 사전에 약제로 진행된다. 문의 062-570-7025. /박성천기자 skypark@



정암 이병오 개인전 15일까지 향담갤러리

정암 이병오 개인전이 3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향담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문인화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은은한 색감의 연꽃과 검은 먹의 기운이 잘 어우러진 '연잎에 바람 일어', '새로운 시작' 등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또 세상은 즐거움을 노래한 글귀와 함께 만나는 '맑은 향기', 수묵의 매력이 화면을 장악한 '큰사람' 등의 작품도 인상적이다.

금봉 박행보 선생을 사사한 이 작가는 호남대 미술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전남도·광주시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 중이다. 정암문인회 연구실도 운영하고 있다. 오프스 3일 오후 5시30분. 문의 062-266-12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운 시작'

서양화가 정미희 개인전

8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

서양화가 정미희 16번째 개인전이 광주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갤러리에서 열린다.

'연 이야기(lotus stor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이 인상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흔히 보는 화려한 자태 대신, 재해석을 거친 연꽃은 한 템포 숨을 죽이며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다양한 색감이 조화를 이룬다. 작가는 대상의 전체를 보여주지 보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화면을 구성하며 한국 고유의 색조를 통해 감성적인 기운을 전한다.

작가는 연(lotus)에서 인생을 관조하고 생활의 활력과 사랑을 느끼며, 힘든 삶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전한다.

조선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정씨는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 초대전을 열었으며 전업작가회, 광주미술작가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lotus story'

이승기 회갑 기념 개인전 10일까지 보노갤러리

이승기 개인전이 오는 10일까지 광주시 동구 동명동 카페 보노갤러리에서 열린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대표로 사생대회에 도맡아 나가곤 했던 그는 '화가'가 꿈이었지만 이후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다른 길로 접어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림에 대한 열망만은 놓지 않았다.

교사가 된 후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스케치와 수채화 기법, '능소화' 인물 스케치 강좌 등을 듣기도 했던 이씨는 지난 2015년 교직에서 명예퇴직하며 본격적으로 그림 수업을 받았다.

회갑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풍경과 정물화 등을 선보인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인물화다. 사랑하



'능소화'

는 아내의 모습부터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등 이국의 땅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박한 인물 스케치 사진도 인상적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9일 북카페서 '책으로 특하는 세상' 진행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재단 내 북카페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책으로 특(Talk)하는 세상'을 진행한다.

'책으로 특(Talk)하는 세상'은 여성재단 작은 도서관 북카페 은새안 추천도서를 중심으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광주지역 성 평등 문화플랫폼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책으로 특(Talk)하는 세상'은 김홍미리(여성주의연구활동가)진행으로 이민경 작가와 함께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된다.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이며, 책을 사라고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670-0536. /전은재기자 ej6621@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